

# ‘그들만의 리그’ 공매도 금지, 왜



## Cover Story ■ 없는 것을 판다고요?...주식 공매도의 실체와 금지한 배경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한 및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극심한 하락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입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주가가 약세인 시기에는 주가 하락 폭을 더욱 키우게 되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유럽 재정위기 시기인 2011년 등 두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공매도 제한을 하는 ‘과열종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위주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6배, 코스닥 종목은 5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지만 그 기준을 코스피 종목은 3배, 코스닥은 2배로 낮췄습니

다. 이렇게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되게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 폭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3일에는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물론 공매도 금지가 패닉에 빠진 세계 경제를 구원하는 필승 전략은 아닙니다. 기준금리 인하, 통화스왑 체결, 국고채 매입 등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매도 규제 시행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매도가 무엇이고, 현재 공매도 금지 규제가 왜 시행되었는지, 실효성은 어떠한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호 기자·원정윤 경제경영연구소 인턴연구원

### INSIDE



마스크 비용과 편익 6



인류를 구한 백신 10



강다니엘 미니앨범 13

### Q.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A.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매수’와 ‘매도’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수는 ‘물건을 사들이다’, 매도는 ‘물건을 팔아넘기다’라고 정의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물건은 주식이므로 매수, 매도는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채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도 주문을 내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주로 보유한 증권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손실을 회피하거나, 고평가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활용됩니다.



# 난해하고 어려운 음악 듣는 이유 어쩌면 우리의 삶과 닮았기 때문

구스타프 말러(작곡가·지휘자, 1860~1911)



<사진=위키미디어>

고전 음악 중에서도 말러는 진입장벽 높은 작곡가로 분류돼 있다. 누군가는 말러를 베토벤과 견주며 찬양한다. 반대쪽에서는 “아무리 들어도 말러는 모르겠다”며 고개를 젓는다.

말러의 음악엔 경계가 없다. 장엄하게 흐르던 곡이 한순간 통속적인 선율로 바뀐다. 감미롭게 마음을 감싸주는 연주가 금세 장송곡으로 변한다. 교향곡이 가지고 있는 기승전결 구조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말러는 그의 음악만큼 복잡한 인간이었다.

◆우울했던 유대인 소년

말러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변방이었던 보헤미아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유럽 주류 사회에서 유대인은 이방인이었다. 말러의 음울한 성격은 유대인으로서 차별받으며 형성됐다. 또한 말러는 연달아 형제들을 잃기도 했다. 어린 시절 목격한 가족의 죽음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말러는 열다섯 살에 빈 음악원에 입학해 정식 음악 교육을 받았다. 전업 작곡가라는 꿈을 꿨다. 열일곱 살에 ‘탄식의 노래’라는 곡을 쓰기 시작했다.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했다. 이 곡을 베토벤 콩쿠르에 출품했다. 심사위원 중에는 브람스가 있었다. 당시 유럽 음악 구도는 브람스와 바그너로 양분돼 있었다. 둘은 대립하는 관계였다. 빈 음악원에서 말러는 브루크너에게 작곡을 배웠고, 브루크너는 바그너 지지자였다. 굳이 따지면 적의 편에 속하는 말러에게 브람스가 좋은 점수를 줬을 가능성은 낮았다. ‘탄식의 노래’는 콩쿠르에서 떨어졌다.

◆민요를 장송곡으로 뒤틀었다

콩쿠르에서 낙선한 말러는 전업 작곡가 대신 생계를 위해 지휘봉을 잡는다. 유럽 곳곳에서 지휘자로서

“베토벤만큼 위대한 작곡가” 극찬과  
“이해하기 힘든 음악” 혹평 고루 흔재

19세기말 유대인으로서 차별받고  
이른 나이에 가족의 죽음도 목격  
인생 희로애락 교향곡에 담아

세계적 지휘자 번스타인 덕에  
1960년대부터 ‘말러 듣기’ 열풍  
정명훈도 대표적인 말러 애호가

크고 작은 경력을 차근차근 쌓았다. 지나치게 꼼꼼했던 말러는 연주자들을 들들 볶으며 완벽을 추구한 지휘자였다. 단원들은 말러를 싫어했지만, 실력만큼은 인정했다. 말러는 본래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지휘자로 일하면서도 휴가를 이용해 곡을 썼다. 1888년 그는 첫 번째 교향곡 ‘거인’을 완성했다. 1889년 부다페스트에서 자신이 작곡한 곡의 지휘를 맡았다. 결과는 대실패였다.

두 번째 악장까진 그런대로 박수를 받았다. 문제는 세 번째 악장부터였다. 말러는 친숙한 민요를 가져와 불온한 방식으로 패러디했다. 원곡의 따뜻한 분위기를 비틀어 장송곡 버전으로 연주한 것이다. 청중은 말러가 진지한 장르인 교향곡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고 여겼다. 마지막 악장이 시작되자 청중은 다시 한번 화들짝 놀랐다. 초반부터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선율에 청중은 혼비백산했다.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불길한 불협화음이 이어지더니 마지막엔 별안간 승리의 팡파르를 울리며 마침표를 찍는다. 청중은 야유를 퍼부었다.

◆프로이트를 찾아간 말러

말러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건 교향곡 5번이다. 특히 이 작품 4악장은 영화와 광고에도 자주 등장할 정도로 유명하다. 동시에 가장 말러답지 않은 곡으로 평가받는다. 귀에 감기는 서정적인 선율을 시종일관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 곡은 말러가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작곡한 작품이다. 말러는 사교모임에서 만난 알마 쇠들러라는 여성에게 한눈에 반한다. 교향곡 5번 4악장은 알마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구애곡이다. 1902년 말러는 자신보다 열아홉 살 어린 알마와 결혼한다.

알마는 팡파탈이었다. 많은 남성 예술가가 알마를 뮤즈로 삼고 구애를 펼쳤다. 그런 알마와 결혼한 말러는 행복하면서도 불안했다. 언제든 알마가 자신을 떠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비극이 잇달아 발생했다. 둘 사이에 태어난 딸이 병으로 다섯 살에 세상을 떠났다. 반유대주의 바람도 거세게 불어 이곳 저곳에서 공격받았다. 말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부부 관계에 흠집이 났다. 알마는 결국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말러의 심신은 너털너털해졌다. 당시 최고의 정신과 의사였던 프로이트에게 상처를 털어놓을 정도였다. 말러는 프로이트와 상담한 이듬해인 1911년 눈을 감았다.

◆“언젠간 내 세상이 올 것이다”

말러는 “나는 교향곡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세상은 어땠을까. 말러는 길거리에서 자랐다. 그래서 그의 교향곡엔 세속적인 소음이 섞여 있다. 말러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의 음악엔 깊은 비애가 깔려 있다. 말러는 형제와 어린 자식의 죽음을 지켜봤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다. 조롱받고, 무시당하면서도 교향곡 10개를 완성했다. “언젠간 내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말러의 세상’은 1960년대에 왔다. 말러의 제자 중에는 브루노 발터가 있었다. 유대인이었던 브루노 발터는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는다. 1942년 브루노 발터는 독감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새파랗게 어린 지휘자가 대타로 무대에 올랐고, 일약 스타가 됐다. 그는 레너드 번스타인이다. 말러 음악에 심취했던 번스타인은 어둠에 묻힌 작곡가를 다시 꺼냈다. 그는 말러가 남긴 모든 교향곡을 차례대로 녹음했다. 번스타인 덕분에 말러의 교향곡은 빛을 봤다. 말러의 인기는 소나기로 끝나지 않았다. 번스타인 이후 현재까지도 말러는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늘날 말러는 ‘팬텀’을 거느린 몇 안 되는 고전 음악계 스타다. 말러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러리안’이라는 단어까지 있다. 정명훈 역시 말러를 연주하기 위해 지휘자가 됐다고 고백할 정도다.

물론 ‘말러리안’에게도 말러의 음악은 쉽지 않다. 난해하고, 불안하고, 소란스럽고, 고독하고, 가끔씩만 달콤하기 때문이다. 말러의 삶이 그러했듯 말이다. 말러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불안에 사로잡혔지만 그럼에도 다시 길을 찾고 앞으로 걸었다. 이 모든 과정을 교향곡 10개에 담았다.

제대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돌아보면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불안, 불행,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없다. 아픔의 리듬 속에 갇힌 날, 그런 날엔 말러의 음악에 도전해 보자. 무언가가 들릴지도 모른다.

조성준 기자



매일경제·금융저축정보센터 공동 기획

회장	장대환
발행·편집·인쇄인	손현덕
논설실장	장경덕
편집국장	김정욱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편집국 경제경영연구소 (02) 2000-2408	
이메일 : teen@mk.co.kr	
홈페이지 : teen.mk.co.kr	
구독문의	(02) 2000-2383
광고문의	(02) 2000-2200

# 천한 직업 ≡ 천한 사람... 조선후기 박지원의 통찰



전현선 교사의  
고전문학 감상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우리가 누군가의 ‘첫인상’을 형성하는 시간은 불과 몇 초라고 한다. 순식간에 처음 보는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해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정보는 첫인상 형성에 아주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한다.

**박지원 ‘예덕선생전’**  
직업에대한 편견·선입견  
지금보다 심했던 조선시대

‘저 엄행수가 똥을 진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보지만  
생활은 지극히 향기로워  
그를 선생님으로 삼겠다’

똥 푸는 일 하는 주인공  
의리있게 일하는 모습 그려  
직업보다 됨됨이에 초점

“왔다갔다하지만 말고 가서 지켜보세요. 일꾼들이란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덮어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구요.” (중략)

“당신이 지금 가서 따져봐요. 저런 사람들 돈이라면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괜히 견적만 거창하게 뽑아 놓고 일은 그 반값도 못 미치게 하자는 속임수가 틀림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공사판 내용을 다 알겠어요. 이렇다 하면 그런 갑다 하고 믿는 게 예사지.” 아내는 애가 달았다.

양귀자의 소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의 일부이다. 어느 날 집 화장실이 망가졌고 일꾼을 불러 수리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일꾼을 감시하라는 것이다. 감시하지 않으면 일을 대충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견적을 부풀리면, 공사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는 사기를 당할 것이다. 따라서 일꾼들은 분명 수리비를 부풀려 우리를 속일 거라 걱정하고 있다. 아내는 일꾼 사내를 오늘 처음 봤다. 하지만 벌써 그에 대한 단단한 선입견을 만들어버렸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4만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에, 쓰레기 치용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중략) “그렇게 해서 모두 7만원이면 되겠습니까요.” (중략)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십팔만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써비스로다가……”

드디어 값을 치르는 시간이 되었다. 아내가 그토록 걱정하던 시간이다. 그런데 이 막노동 일꾼은 너무나 정직하게 자기 몫의 정당한 금액만을 요구하고 있다. 처음 견적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부르고, 일을 더 해준 것은 서비스라고 한다. 아내와 남편은 이 정직한 노동자 앞에서 몸 둘 바를 모른 채 값을 치른다. 소설의 표현에 따르면 일꾼에게 돈을 내어주며 남편은 ‘뭔가 일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아마 부끄러움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옛날 사람들도 직업에 따라 사람을 판단했을까. ‘왕’이나 ‘양반’처럼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은 귀한 존재였고, 막일을 하는 노동자는 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지금보다 더 심했을까. 대체로 그렇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깨닫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훌륭하고 소중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

“이 세상 양반님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행수로 말하면 마을 안의 천한 사람으로 막일을 하는 처지요, 마주 서기 치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의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칭하고 교분을 맺어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조선후기 박지원의 소설 중 ‘예덕선생전’의 일부이다. 제자가 스승에게 말하고 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엄행수’와 벗으로 지내냐고 따져 묻고 있다. ‘엄행수’는 똥거름을 지고 나르는 것을 업으로 삼는, 지금으로 치면 화장실 청소부다. 제자는 스승이 마주 서기도 치욕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과 친분을 맺는 스승에게 못마땅한 모양이다.

그가 뒷간에서 사람 똥, 마구간에서 말 똥, 외양간에서 소 똥 등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가져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일세. (중략) 저 엄행수가 똥을 지고 거름을 떼어다가 그걸 직업으로 사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보겠지만 그의 생활을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는 지키는 것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중략) 그렇기에 나는 엄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단 말일세.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 일컫는 것일세.

제자의 공격적인 물음에 스승은 차분히 대답하고 있다. 똥을 치우는 일이 염치없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사실 똥을 치우는 일은, 염치없기는커녕 너무 고마운 일이다.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엄행수가 배짱을 부려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버티면, 그 험한 일을 누가 선포 나서서 할 것인가. 마을은 순식간에 똥밭이 될 것이다. 모두가 직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폄하하고 업신여길 때, 스승은 어려운 일을 의리 있게 해 내는 그의 진가를 알아본 것이다. 소설 속 스승은 제자에게 말한다. 자신은 감히 엄행수와 벗이 될 수 없으며, 그에게 예덕선생이라는 이름을 붙여 윗사람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직업이라는 꺼풀을 거두어 내고 그의 됨됨이를 제대로 평가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지만 쉽게 고치기 힘들다. 이런 우리들에게 교훈을 건네기 위해, 조선시대 박지원은 ‘똥 푸는 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 우리에게 남겼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설 쓰기를 택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소설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건네고 있다. (양주고 국어교사)

##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 주가 내리면 돈 버는 공매도... 폭락 부채질 우려



(개티이미지뱅크)

### Q.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나요.

A : 이 답변을 위해 먼저 공매도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로 나뉩니다. 두 사례 모두 증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무차입 공매도와 달리 차입 공매도는 매도하고자 하는 증권을 먼저 차입, 즉 외부에서 꺾은 후 거래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결제불이행 위험(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하려면 증권을 차입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Q. 투자자에 따라 차입 공매도 방식이 다르는데.

A : 차입 공매도에도 투자자와 차입 방식에 따라 신용대주거래와 대차거래로 구분됩니다. 개인투자자가 증권금융회사(주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용으로 차입하는 거래는 신용대주거래, 기관투자자·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차입하는 거래는 대차거래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공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라면 신용대주거래 자격을 갖춰야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라면 대차거래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용대주거래와 대차거래라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있어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 Q. 신용대주거래와 대차거래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A : 신용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용으로 차입하는 거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매도 주식을 대여해 주는 것입



니다. 이러한 거래를 하려면 개인투자자는 차입증권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 평가액의 140%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해야 하며,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30~60일 내에 차입한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대차거래는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주식대차시스템'에서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것입니다. 대차거래 시에는 요구되는 증거금이 없고, 담보금도 차입증권 금액의 105%만을 제공하면 됩니다. 상환 기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도 상환(recall)을 요청하면 상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 Q.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차이를 왜 두는 것인가요.

A : 공매도의 결제불이행 위험 때문에 증권 차입 단계에서 투자자 신용도와 자금력 등을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기관보다 이러한 지표들에서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입 방식을 다르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대주거래와 대차거래의 차이에 대해 보자시피 신용대주거래의 요구사항이 더 까다로운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한 증권 차입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탁결제원과 달리 증권사는 개인의 소량 공매도 수요에 맞춰 공매도 물량을 원활히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개인의 공매도가 더욱 제한되곤 합니다.



### Q. 공매도 장점을 알려주세요.

A : 먼저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락장이 극심할수록 값싼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익 변화를 줄이는 헤지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공매도는 투자액 일부를 부채로 조달해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을 발생시키는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는 부정적 정보가 가격(주가)에 빠르게 반영되어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효율적 시장의 달성을 촉진하는 시장의 가격발견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2008년 금융위기때도 금지... 하락세 막기엔 한계

## 지붕이의 상식사전



**주가 예측에도 활용되는 공매도** : 공매도를 활용한 투자 지표에는 대표적으로 공매도 비율과 스페셜리스트대주비율이 있습니다.

공매도 비율은 미국 증권 분석가인 그랜빌이 고안해 낸 주식투자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6일 단위로 계산되며 대주 잔액의 6일간 합계를 거래량의 6일간 합계로 나눠 산출합니다. 신용거래에서 매각한 주식 대부분이 언젠가는 재매입에 종당되므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주식시장 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매도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주가는 상승으로 반전, 20% 이하가 되면 주가는 하락 추세라고 해석합니다. 스페셜리스트대주비율은 전체 공매도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행한 공매도 비율입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이 시장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들의 투자심리를 측정할 때 이 비율을 사용합니다. 높은 비율은 스페셜리스트들이 향후 시장의 약세를 예측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Q. 공매도 단점을 알려주세요.

A. 공매도는 투자 전략으로서 장점이 있지만 분명한 단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결제 불이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 후 예상과 다른 상승장이 발생했을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감아야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리면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며 주식시장이 한순간에 폭락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시장 불안에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 조작으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투자 주체가 투자 규모가 큰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주가가 조작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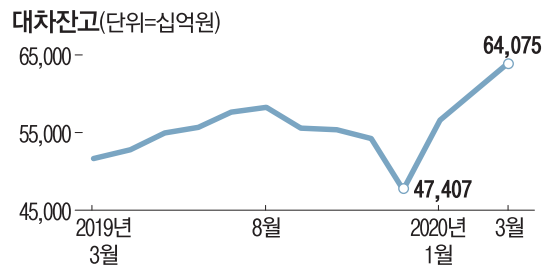
### Q. 현재 코로나19 사태 말고 공매도를 금지했던 사례와 그 효과는 어땠나요.

A. 과거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공매도 금지를 한 바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특히 금융주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에도 그해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한 조치들이 주식시장 하락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에 코스닥은 10.0% 상승했으나 코스피는 3.4% 하락했습니다. 2011년에는 코스피(-12.1%)와 코스닥(-9.9%)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 가격의 변동성 확대를 축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미 위기가 발생한 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등에 시사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 Q. 국내 공매도 제도에는 어떤 규정들이 있나요.

A. 공매도 단점도 크기 때문에 '업틱룰(Uptick rule)' 규제와 공매도 호가 표시, 공매도 잔액 보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공매도 종목별 잔액 공시 등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업틱룰 규정을 알아보면,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때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업틱룰이 있다면 공매도를 하더라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과도한 주가 하락이 제한됩니다. 한편 자유롭게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제로틱룰(Zero-tick Rule)'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공매도와 관련한 국내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공매도와 관련하여 손꼽히는 국내 주요 사건으로는 셀트리온의 공매도와 전쟁, 한미약품의 불성실 공시와 공매도 악용 사례 등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식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투자로 자금 지출을 해왔고 이것이 공매도 세력에게 사업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셀트리온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해왔고 이에 셀트리온 측은 공매도 세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며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트리온 매출액은 해마다 상승을 보이며 주가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자 공매도 세력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매도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실적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기호 기자·원정윤 경제경영연구소 인턴연구원



최병일 박사의  
말랑말랑 경제학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갈 때는 필수품처럼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전까지 마스크는 얼굴을 가리고 싶은 사람들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외출한 사람처럼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 1500원의 줄서기... 마스크 비용과 편익의 관계

### Q. 마스크 착용이

외부효과와 사례가 될 수 있나요?

A. 경제학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해나 이익을 주는 행위를 외부효과(External effect)라고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동은 혹시 모를 전염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집단면역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외부효과 사례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인 가정에 따라 각각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선택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적어도 1500원에서 3000원가량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면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 불편한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에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은 내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과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도심에서 본인이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 전달을 예방하는 차단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Q.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동은

모두 비합리적인 선택인가요?

A. 문제는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19를 회피했을 때 얻는 편익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건강한 젊은이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감염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이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비용을 지불하고, 생활의 다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위험은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는 위험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이상을 건강한 사람들이 마스크 구매에 돈을 쓰고 일상의 불편함을 감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Q.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유독 마스크를 더 쓰는 이유가 있나요?

A. 물론 코로나19는 앞서 유행했었던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전염 속도가 빠르고 정부나 언론에서도 진행 상황을 심각하게 다뤘다. 사람들이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이전의 다



른 사례와는 확연히 달라진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동조성(conformity) 역시 마스크 착용을 증가시킨 주요인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나 말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 편의대로 선택할 용기가 생긴다. 그런데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면 무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

### Q. 사람들이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실험이 있다는데요.

A. 1950년대 폴란드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는 사람들의 사회적 동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한 실험을 했다. 실험에 참가한 7명에게 직선 몇 개를 보여주고 서로 길이가 같은 직선을 찾는 쉬운 질문이었다. 애시 교수는 응답자 7명 가운데 6명에게 미리 약속된 오답을 말하도록 지시했고, 이때 실제 관찰 대상인 마지막 응답자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했다. 실험 결과 같은 길이의 직선을 찾는 너무나 단순한 물음에 실험 대상자의 3분의 1이 넘는 응답자가 잘못된 다른 6명의 대답에 동의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세일러 시카고대 교수는 자신의 베스트셀러인 '넛지(Nudge)'에서 애시 교수의 사회적 동조의 실제적인 현상을 소개했다. 미네소타주 정부는 시민들이 세금을 전보다 더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4개 집단에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제공했는데 세금 납부 실적이 현저하게 개선된 집단은 '이미 90% 이상의 미네소타주 시민들이 세금 납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준 네 번째 그룹이었다.

### Q. 행동경제학을 활용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촉진할 수 있나요?

A.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따르면 부정적 외부효과는 벌금 부과로, 긍정적 외부효과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외부효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의 크기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했던 마스크 착용 사례나 세일러 교수가 '넛지'에서 소개한 미네소타의 조세 정책처럼 인간의 사회적 동조성을 활용해 외부효과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 알쏭달쏭 OX 퀴즈

1.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다. ( )
2.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마스크를 쓸 때 발생하는 사적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 )
3.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

▶정답 1. × 2. × 3. ○



임성택 박사의  
도전과 승전의 경제학

해리 마코위츠(Harry M. Markowitz)가 금융경제학의 물꼬를 튼 이후 금융업계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였지만, 그의 연구를 실제로 활용하기엔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 1950년대 당시의 최신형 컴퓨터를 사용해도 1000여 개 주식 간에 공분산(두 변수 간 관계를 나타내는 양)을 계산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찾아내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때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마코위츠의 이론을 한 발자국 더 진보시킬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경제학계에서 이단아로 취급받던 마코위츠와 달리 토빈은 이미 스타 경제학자였는데, 케인스의 이론을 정교화하고 유동성과 채권 이자율에 대해 깊이 연구해온 차였다.

## 제임스 토빈 리스크-수익 최적비율 설명 윌리엄 샤프 자산가격 결정 이론 만들어

### Q. 투자자별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필요한가?

A : 주식은 수익이 높은 대신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을 지닌 위험한 상품이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각자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 중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달랐고, 고객마다 적합한 주식 종목을 골라 추천하는 것이 당시 투자자문사의 일이었다. 은퇴자들에게엔 시류를 타지 않는 전력이나 통신주, 과감한 젊은이들에게는 정보기술(IT)이나 모험적인 기업 주식을 추천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이때 토빈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투자는 단지 주식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나 안전한 국채에도 할 수 있다. 만약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서 변동성(위험) 대비 수익률 비율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찾아 '슈퍼 포트폴리오'라고 이름 붙였다고 생각해보자.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높은 수익성 때문에 위험 또한 상당히 높을 것이며,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는 이것에 투자하길 꺼릴 수 있다. 하지만 슈퍼 포트폴리오와 국채에 반반 투자한다면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마코위츠의 방법처럼 투자자가 원하는 변동성 수준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그때그때 찾을 필요 없이, 가장 우수한 '슈퍼 포트폴리오'를 찾아낼 수 있다면, 투자 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가 이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투자하면 된다.

기업도 주주들 간에 서로 상반된 의견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위험 대비 수익을 높여 기업 가치를 높게 만들면, 주주들은 이제 자신의 구미에 맞춰 주식과 채권 보유량을 조절해 자신이 원하는 위험 수준과 수익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토빈의 '분리정리'다.

### Q. 주식 수익률의 결정 요인은 무엇일까?

A : 그럼 이제 그 '슈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찾아가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도전한 윌리엄 샤프(William Sharpe)는 UCLA 소속 대학원생으로, 그의 최초 박사논문 주제는 금융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나 논문이 별로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그의 진로는 크게 바뀌었고, 마침 같은 연구소에 합류했던 마코위츠에게 논문지도를



제임스 토빈

윌리엄 샤프

받으면서 금융경제학의 개척자로 진입할 수 있었다. 샤프는 각 주식들의 수익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신 근본적인 요인에서 영향받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호경기에는 대부분 주가가 상승하는 법이다. 물론 기업 그 자체의 경영 성과에 따라 경기와 상반되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주식으로 분산투자를 하면 이런 개별적 변동성은 제거할 수 있다. 샤프는 이러한 근본적 요인이 '시장 포트폴리오(기업 크기에 따라 골고루 투자한 포트폴리오)'라고 주장했다. 시장 포트폴리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둔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은 낮은 수익률을 얻게 된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장 우월한 '슈퍼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해냈다. 투자자들이 분리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모두 슈퍼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것이며,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결국 시장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주식 수익률은 그 주식의 시장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샤프가 만들어낸 모형은 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CAPM)이라고 불리고 있다.

### Q. 시장 평균 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는?

A : 샤프의 연구는 투자자문업 종사자들을 당황시키는 내용이었다. 펀드운용사들은 자신들이 특수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주식 종목을 고를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CAPM에 따르면 일부 종목만 선택하는 것보다 시장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이 더 우수하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을 짜는 펀드매니저는 시장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차라리 기계적으로 시장 포트폴리오를 따르는 인덱스펀드에 투자해 수수료를 절약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CAPM은 단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주식 수익을 설명한다는 한계점 때문에 비판을 받았지만, 이론의 간결함과 아름다움으로 아직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펀드 운용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점으로 주가지수 수익률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금융 이론에 대한 샤프의 공적을 짐작할 수 있다.

알쏭달쏭 OX 퀴즈

1. 투자자 성향에 따라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서로 다르게 선택돼야 한다. ( )
2. 시장 포트폴리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은 수익률이 높다. ( )
3. CAPM에 따르면 인덱스펀드는 적극적으로 투자 종목을 고르는 펀드보다 우수하다. ( )

▶ 정답=1.X 2.O 3.O

# 은행 망하면 내 예금은 어떻게 ...



<매경DB>

##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돼요

**Q.**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예금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금융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계 대공황 당시에 은행 부도가 늘어 은행 지급능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자 예금주들은 앞다투어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Bank-run)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재무상태가 튼튼한 은행 역시 파산 위험에 직면하면서 기업 등의 대출채권을 무리하게 회수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이 도산하고 근로자가 실직하여 경기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파산 시 일정금액의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은행 예금은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A.**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는 보험회사처럼 은행(저축은행 포함)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은행 등이 파산할 경우에는 해당 기금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다만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



### 지봉이의 금융상식

### 예금자보호제도

아침에 신문을 읽던 금이는 코로나19가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상당수 기업과 금융회사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기사에 며칠 전 용돈을 모아 A은행에 예금한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은행이 망해서 내 돈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금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우리가 맡겨놓은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을 분담시키기 위해 보호 가능 금액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5000만원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은행의 잔여 재산을 다른 채권들과 비례하여 분배받게 됩니다.

**Q.** 예금해야 할 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A, B, C 등 3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세 곳 모두 각각 5000

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파산 등이 염려될 경우에는 한 은행에 돈을 집중 예치할 것이 아니라, 여러 은행에 분산시켜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A은행의 지점들은 모두 동일 회사에 속하므로 지점의 예금들은 모두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가 궁금할 경우에는 통장이나 상품설명서 등의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 상품을 검색하여 보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 주식, 펀드에 투자하였는데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투자자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별개 회사에 각각 예치되고, 펀드에 대한 투자금도 수탁회사에 별도 보관하므로 증권사의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법령에서 예탁 의무를 정하지 않은 상품들은 발행 증권회사 파산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주식, 펀드의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마땅히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금융회사 파산 시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각종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도 역시 보호 대상과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금융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나타내주는 각종 건전성 지표(은행 BIS비율, 증권사 순자본비율)들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

### ▶ 여기서 잠깐!

**Q.**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협은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이며,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으로 상호금융회사에 속합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를 하지만 단위농협, 단위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업계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예금자보호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위험 회피형·위험 선호형... 당신의 투자 성향은?

틴매경TEST 고득점을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중요하다.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를 소개한다.



1. 아래를 읽고 K의 선택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고교생 K는 최근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5만원에 구매했다. 이 콘서트 관람에 대한 K의 유보가격은 7만원이며, 현재 공식적으로 이 티켓은 매진된 상태이다.

- ㉠ K가 콘서트 관람을 통해 얻는 만족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만원 이하일 것이다.
- ㉡ 만약 티켓이 8만원에 판매되더라도 K는 이 티켓을 기꺼이 구매했을 것이다.
- ㉢ 만약 다른 사람이 K의 티켓을 6만9000원에 사겠다고 제안한다면 K는 이에 응할 것이다.
- ㉣ 만약 K가 이 티켓을 분실했더라도 암시장에서 이 티켓을 7만원에 살 수 있다면 K는 이 티켓을 재구매해서 콘서트에 가고자 할 것이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⑤ ㉢, ㉣

(해설)

고교생 K의 콘서트 관람의 유보가격은 7만원이므로 콘서트 관람으로부터 얻는 심리적 만족감의 크기는 7만원 이하이다. 또한 티켓이 8만원에 판매된다면 이 티켓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만약 다른 사람이 이 티켓을 6만9000원에 산다고 제안할 때 이를 수락하면 6만9000원의 편익을 얻지만 이를 거절하면 7만원의 편익을 얻는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을 거절할 것이다. 또한 이 티켓을 분실했을 시 7만원에 다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최초 지출 5만원은 매몰비용이므로 티켓을 재구매해서라도 콘서트에 가고자 할 것이다. 정답은 ③

2. 아래의 A~D주식에 대한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고르면?

구분	A주식	B주식	C주식	D주식
기대수익률(%)	20	25	25	30
표준편차(%)	20	10	15	20

- ① A      ② B      ③ D      ④ A, D      ⑤ B, C

(해설)

주식 투자자는 투자안의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

투자안의 가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안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따라 결정된다.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주관적 태도에 따라서 투자안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위험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미래 수익의 변동 정도를 의미하는데, 주로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투자안의 분산(표준편차)이 크면 클수록, 투자안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투자안의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안의 가치가 더 작다고 평가하는 투자자를 위험회피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B주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안의 가치가 더 크다고 평가하는 투자자를 위험선호형이라고 부른다.

또한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대수익률만을 기준으로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자를 위험중립형이라고 한다. 정답은 ②

최봉제·이인혜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 지붕이의 용어사전

▶ 팬데믹 (pandemic)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한다. 최근 WHO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코로나 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했다.

▶ 베어마켓 (bear market)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세장을 말한다. 곰이 싸울 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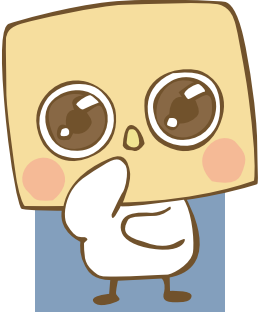
래로 내려찍는 자세를 하는 데 빗대어서 베어마켓이라 부른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돼 미국 다우지수가 급락했다.

▶ 인포데믹 (Infodemic)  
정보 (Information)와 전염병 (Pandemic)이 합쳐진 합성어로 질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셜 미디어를 타고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WHO는 코로나19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가 심각한 수준

## 팬데믹·베어마켓·인포데믹·서킷브레이커

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를 '인포데믹'으로 규정했다.

▶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우려와 국제 유가 파동까지 겹쳐 뉴욕 증시는 개장 직후 폭락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예주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아하, 과학

# 인류 구원한 백신의 역사와 원리



**원은지 박사의  
생명과학**

천연두 바이러스는 아스테카 문명을 사라지게 했다. 약 200년 동안 천연두에 의해 수억 명 인류가 목숨을 잃었다. 아테네의 3분의 1을 사라지게 한 것은 홍역이었고, 흑사병은 2억명에 가까운 인류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는 지금 또 한번의 전염병의 역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 후보물질의 첫 임상류 투여 시험이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1802년 천연두 백신 '우두법'에 대한 공포를 풍자한 제임스 길레이 영국 풍자만화가의 만평. 당시에는 "소 고름을 맞으면 사람이 소로 변한다"는 험담이 퍼지기도 했다.



## Q. 백신의 원리와 역사는

A. 백신은 체내 항원과 항체의 반응·기억을 통한 방어 기작(생물의 생리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기본 원리)을 이용한다.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병원체를 방어하기 위한 항체를 만들어낸다. 백신은 약화시킨 병원체이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은 방어체계를 형성하고 진짜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항체와 기억세포의 작용으로 면역 기작이 작용한다. 백신이란 이름은 1881년 루이 파스퇴르에 의해 붙여졌다. 백신(종두법·Vaccination)은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Vacca)에서 기인한다. 천연두에 의한 전염의 기록은 기원전 1600년 전에도 있었으며 수포와 농포를 수반하고 치사율이 30%를 넘는 1급 감염병이다. 1796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는 우두균(우두·Vaccinia)을 주사하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소천연두(cowpox)를 일으키는 소의 천연두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천연두를 일으키는 바리올라 바이러스와 같은 과에 속하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인간에게서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나 면역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1880년 지석영이 일본에서 우두묘 제조법을 배워 보급하였으며, 5년 뒤에 종두법이 도입되었다.

## Q. 백신 개발 단계와 생산은

A. 일반적으로 백신을 비롯한 치료제 개발은 후보물질 발굴부터 동물 실험(전임상)을 거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거치기까지 약 10년이 소요된다. 백신 개발의 첫 단계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작용하는 기작을 해석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를 위해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비롯해 면역에 대한 회피 기작 등을 연구한다. 질병을 이해하고 타깃을 검증하는 것이다. 다음은 전임상 단계로 사람에게 접종하기 위한 1차적 안전성 입증 목적을 한다. 전임상 단계에서는 소형 동물로 시작해 사람과 유전적으로 유사한 영장류(원숭이·침팬지 등)를 대상으로 시험해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상 단계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 Q. 백신, 한 번만 맞으면 되나

A. 홍역처럼 한 번의 백신 주사로 20년 이상 항체 생성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감기로 알려진 인플루엔자의 경우 백신의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다. 우리가 매년 독감 주사를 맞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당해

절기 유행 바이러스주로 제조된 백신을 맞아야 한다.

백신의 예방률 역시 백신 주사를 접종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다. 대상포진의 경우 현재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률은 약 50~60%에 지나지 않는다.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상포진을 피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균은 변이를 일으켜 백신에 의한 면역기능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에이즈는 변종이 많은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 하나다.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약 4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백신이 임상개발 단계에 있는 이유다.

## Q.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란

A. 병원균의 운명은 숙주와 함께한다.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로 이동하고 그렇게 전파되어야만 살 수 있다.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목적은 숙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함이다. 바이러스는 변이로 인해 세포와 달라붙는 정도가 강해져 쉽게 세포 안으로 침입하거나 감염체의 치사율을 높이기도 한다.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1918년 스페인에서 발병돼 전 세계로 퍼졌다. 세계 약 5000만명 인구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인류 역사가 기록하는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전염병으로 추정된다. 당시 숙주(인간)의 죽음은 바이러스의 멸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과학기술 발전은 멸종된 바이러스를 살려냄과 동시에 바이러스의 변이 연구로 이어지게 했다. 2005년 학술지 사이언스에는 스페인 독감 사망자의 파라핀 조직에 보관돼 있던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찾은 결과가 발표됐다. 제프리 타우벤버거 미국 질병연구소 박사 연구팀은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증식했고 이 복원을 통해 이 바이러스가 다른 인플루엔자에 비해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 Q.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A. 미국에서 개발·임상을 시작한 코로나19 백신은 RNA 백신으로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이용한다. 바이러스 표면에 솟아 있는 돌기(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담은 전령RNA(mRNA)를 백신으로 활용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 GX-19는 DNA 백신이다.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 내도록 재조합한 DNA를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인체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착각하게 해 면역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게 하는 원리다.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은 재조합 백신으로, 아데노 바이러스를 유전자 운반체(벡터)로 활용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아데노 바이러스에 집어넣고 이를 인체에 주사해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한양대 해양·대기과학연구소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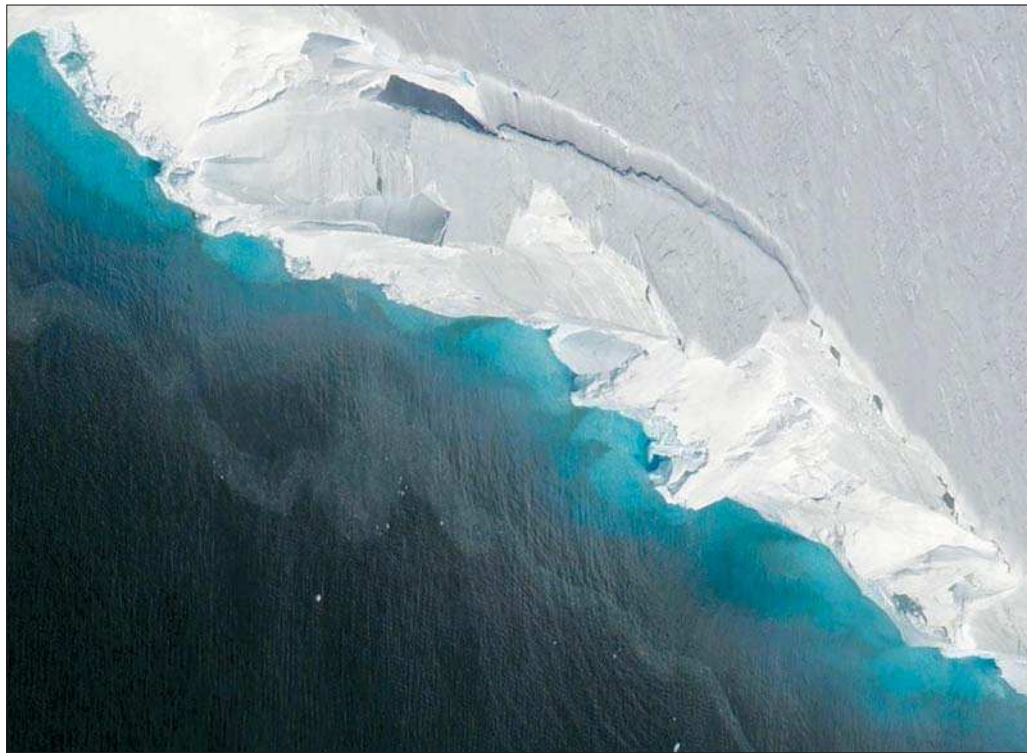


# 전염병 창궐, 기후변화가 부른 재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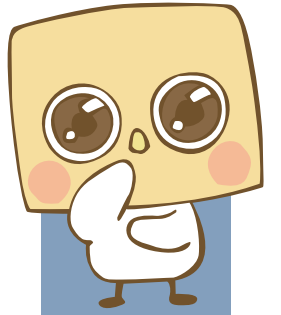


송경은 기자의 과학 이야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과학자들은 갈수록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잦아지고 질병 독성이 더욱 강해지는 현상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온 상승과 강우 패턴 변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 등이 병원균 성장과 확산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남극 대륙의 5대 빙하 중 하나인 트웨이트스 빙하. <사진 제공=미국 항공우주국>



아하, 과학

## Q. 기후변화는 전염병 확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A. 일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말라리아 같은 일부 전염병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봄철과 여름철 모기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뜻한 환경에서는 수온 상승으로 유충 발달이 가속되고 암컷 모기가 더 자주 먹이를 주면서 모기의 번식 속도가 빨라진다. 매개 동물이 빠른 속도로 번식하면 전염병 확산도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변종 출현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 기후변화가 취약 계층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병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Q. 기온이 영하 수십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도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A. 기후변화의 가장 큰 흐름은 지구온난화이기 때문에 극심한 추위는 얼핏 기후변화와는 무관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기온이 45도 안팎으로 치솟으며 최악의 산불 사태를 맞은 호주 같은 이상고온 현상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중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된 2018년의 겨울에 기온이 영하 40도, 체감온도는 영하 69도까지 내려간 미국 동부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이상저온 현상도 기후변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서 눈, 비, 바람 등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 열에너지 총량이 늘고, 이에 따라 기상 현상의 진폭도 커졌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기후변화는 가뭄뿐만 아니라 극지적인 잦은 홍수의 원인이 된다.

## Q.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온실가스(탄소)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고 자국의 탄소 감축 목표를 정해 이행하고 있다. 한국은 파리협약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했다.

문제는 기후변화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2100년 지구 평균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 폭을 2도 밑으로, 가능한 한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지난 3월 23일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이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빙하로 알려졌던 동남극의 덴먼 빙하마저 지난 22년간 5km 가까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덴먼 빙하만 전부 녹아도 지구 해수면이 1.5m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 Q. 극지방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바로 상승하는 건가요?

A. 해수면 상승과 직결되는 것은 남극 대륙 위에 있는 빙하(氷河)다. 대륙이 없는 북극의 얼음은 대부분 바다에 떠 있는 해빙(海水)이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이 든 컵에 얼음을 넣어 주면 수면이 올라가지만 이미 물에 띄워져 있는 얼음은 녹아도 수면이 올라가지 않는 것과 같다. 다만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곰 등 북극 생물들의 삶의 터전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남극에는 대륙의 빙하와 연결된 채 바다 위에 떠 있는 빙봉(氷棚)이 있는데, 빙봉 역시 해빙처럼 이미 바다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녹아도 해수면이 높아지는 않는다. 하지만 ‘빙하의 버팀목’으로 불리는 빙봉이 점점 녹아 사라지면 빙하가 바다로 쏟아져 내리면서 견잡을 수 없이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다.

## Q. 만약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100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높아진다면 그 이후에는 인류는 물론 생태계가 적응할 수 없는 수준의 급격한 속도로 지구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8년 8월 캐서린 리처드슨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를 비롯한 스웨덴, 호주, 덴마크, 미국 등 8개국 16명의 과학자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5도 이상 상승하는 ‘핫하우스(고온실)’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해 국제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엘니뇨, 영구동토층 감소, 아마존 밀립 감소 등 15가지 이상 복합 요인이 연쇄적인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기후변화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 발표만 하면 얼굴 빨개져요... 내 안의 '불안함'이 원인



박수진 연구원의 심리학 교실



〈게티이미지뱅크〉

중학교 때 내 별명은 토마토였다. 발표를 할 때나 사람들 앞에 나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기 때문이다. 피부가 하얗고 얇은 편이라 얼굴이 빨개지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눈에 띄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었다. 이 때문에 한동안은 얼굴이 빨개질 것에 대비해 조금이라도 그것을 가리려고 큰 뽀테안경을 쓰고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별명은 토마토였고,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 또한 여전했다.

꾸준히 놀림을 받던 어느 날,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검붉어졌던 적이 한번 있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걸 보니 아마 당시 상황이 내게는 상당히 강렬했던 것 같다. 때는 음악시간이었고 단소로 국악을 연주해야 하는 수행평가를 앞두고 있었다. 반 친구들은 음악 선생님의 호명에 따라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정해진 곡을 단소로 연주했다. 내 차례가 다가올수록 자리에서 일어나 단소를 연주하는 것이 싫고 불안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이름이 호명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반 친구들이 다 나를 쳐다보았고 그 순간 역시나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단소 입구에 입김을 애처롭게 불어보았지만 ‘후-후-’ 하는 바람 빠진 소리만 날 뿐이었다. 반 친구들은 나를 쳐다보며 웃었다. 나는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검붉어진 채로 곡의 도입부도 연주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서 무언가를 수행해야 할 때 불안한 감정이 나를 휘감고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경험은 대학교 1학년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후 잦은 팀 프

“나는 매력이 없고 바보 같다”  
“실수 안하고 완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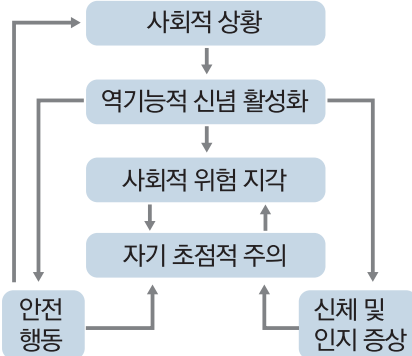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남들 앞에서 자신감 떨어뜨려  
심리학 용어는 ‘사회불안’

불안함의 실체 받아들이면  
멋지게 발표할 수 있게 될 것

젝트 수행으로 인한 발표, 토론 동아리 및 대외활동 등을 통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불안 증상은 많이 가라앉게 되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필자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사회불안(Social anxiety)이라고 한다.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다. 하지만 어떤 감정 이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심해질 경우 정신장애로 진단하게 된다. 만약 사회적 상황에 대해 불안과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사회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회피한다면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SAD)로 진단받을 수 있다. 사회불안장애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관찰되고 평가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뚜렷한 공포와 불안을 6개월 이상 느끼고, 동시에 다른 진단 기준을 함께 충족할 때 진단된다. 여기서 사회적 상황이란 앞서 언급한 발표나 연설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다른 사

Clark과 Wells의 사회불안장애 인지 모델



람과 대화를 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관찰 당하는 상황(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먹거나 마시는 일)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불안은 왜 발생할까.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클라크와 웰스(1995)의 이론이다. 클라크와 웰스는 사회불안 발생 원인을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강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클라크와 웰스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역기능적 신념(Dysfunctional beliefs)을 지니고 있다. 본인이 불안을 느끼게 되는 사회적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역기능적 신념이 활성화한다. 가령 발표를 하기 위해 교실 앞에 선 순간,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나는 매력이 없다, 나는 바보 같다), 사회적 평가에 대한 조건적 신념(내가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것이다), 사회적 수행에 대한 과도한 기준의 신념(내가 불안해하는 모

습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서는 안 된다, 실수하지 않고 발표를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이 자동적으로 활성화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고, 위험을 지각하게 된다. 이렇듯 사회적 위험을 지각하면 세 가지의 변화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서로 영향을 줘 불안을 강화하게 된다. 먼저 얼굴이 빨개지거나 손이 떨리고, 발표에 집중이 되지 않거나 정신이 멍해지는 등의 변화가 발생한다(신체·인지적 변화). 이후 불안을 감소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반 친구들 시선을 피하거나, 발표 자료를 손으로 짚어 손떨림을 억제하고, 말을 빨리 하는 등 행동을 하게 된다(안전 행동). 마지막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자신을 관찰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자기초점적 주의). 이 과정에서 자신이 관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사회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떠오르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얼굴이 빨개진 내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일 거야, 난 발표를 망칠 거야, 실수해서는 안 돼)을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긴장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열심히 준비했으니 발표를 잘 마칠 수 있을 거야)으로 전환하려 노력해야 한다. 내 불안의 실체를 직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사고하려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모두의 앞에서 멋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ORP연구소 선임연구원〉

# 봄봄봄, '넬'이 왔어요

〈강다니엘의 애칭〉



〈사진 제공=커넥트엔터테인먼트〉

긴 겨울잠을 끝낸 가수 강다니엘이 꽃 피는 봄, 다시 날아올랐다.

강다니엘은 최근 새 미니앨범 '싸이언(CYAN)'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터칭(TOUCHIN)' 이후 약 4개월 만에 컴백했다.

### ◆ '싸이언', 식지 않은 강다니엘 글로벌 파워 입증

이번 앨범은 강다니엘이 지난해 7월 발매한 데뷔 앨범 'color on me (컬러 온 미)'를 잇는 'COLOR' 시리즈 3부작의 시작으로, 소년 이미지를 벗고 어느덧 '청년'이 된 강다니엘의 꿈과 열정, 도전을 담은 앨범이다.

앨범은 지친 이에게 행복을 찾아 줄 타이틀곡 '2U'를 비롯해 'Jealous'와 'Interview', 그리고 지난해 겨울 디지털 싱글로 발매한 'TOUCHIN'과 'Adulthood' 등 총 다섯 곡으로 구성돼 있다.

타이틀곡 '2U'는 꿈을 향해 달려가다 지친 혹은 조금은 외로운 기분을 느끼는 이에게 '너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노래다. 통통 튀는 신스 사운드와 사랑이 봄바람을 연상케 하는 경쾌한 리듬에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때론 힘 있는 강다니엘의 보컬이 더해졌다.

이 곡은 국내는 물론, 해외 아이튠스 차트를 석권하며 뜨거운 글로벌 반응을 이끌어냈다. 앨범 발매일인 3월 24일 기준, 올 앨범 차트(All Album Chart)에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 9개 지역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K팝 앨범 차트(K Pop Album Chart)에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터키, 태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12개 지역에서 1위를 석권했다. 미국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스페인 6위, 아랍에미리트 7위, 사우디아라비아 9위, 뉴질랜드 18위 등 순위권에 올랐다. 데뷔 4년, 솔로 2년 차에도 굳건한 '강다니엘 파워'를 입증한 결과다.

### 강다니엘 미니앨범 '싸이언'

통통 튀는 사운드·경쾌한 리듬  
타이틀곡 '2U' 지친 일상 위로

베트남·대만·홍콩·터키 등  
K팝 앨범차트 12개국서 정상  
국내 넘어 글로벌파워도 입증

힘든 시기 딛고 다시 무대위로  
"긍정적인 에너지 줄 수 있기를"



### ◆ 공황장애 딛고 컴백... 더욱 특별한 컴백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하며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활약한 강다니엘은 데뷔 초부터 신드롬에 가까운 높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워너원 활동 종료 후 이어진 솔로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솔로 데뷔에 앞서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타결하고 솔로 행보에 나선 그는 지난해 11월 컴백 당시 본격 활동을 앞둔 상태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며 활동을 돌연 중단해 팬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다. 약 3개월의 공백 끝 강다니엘은 올해 1월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남기고 활동 재개를 암시하며 힘이 돼 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당시 강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대해 "잠시 겨울잠이 필요했다"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이야기들이 봄을 데려와서, 저도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만큼, 한층 성숙해진 강다니엘의 내면이 진솔하게 담긴 앨범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청춘이라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불안한 순간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뒤 내딛는 첫걸음인 만큼 향후 펼쳐질 강다니엘의 음악 여정에도 특별한 방점이 될 전망이다.

강다니엘은 "새로운 앨범을 내고, 음악과 무대를 다시 할 수 있게 돼 기쁘고 행복하다. 컴백이지만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이번 앨범이 무척이나 소중한데, 한편으론 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향후 이어질 'COLOR' 시리즈에 대해서는 "가장 나다운 모습,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을 색으로 담아내는 시리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앨범을 통해서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건네고 싶은 마음도 전했다. 강다니엘은 "힘든 시간을 모두 함께 이겨내고 계실 텐데, 이번 앨범의 음악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세연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기자

# 코로나로 준비 차질...입시일정 꼼꼼히 파악해야

## 2021 학생부종합전형 전략

### 2021 수시모집 전형별 모집인원

구분	전형 유형	2021학년도		비교 (전년대비)
		모집 인원(명)	비율 (%)	
수시	학생부교과	146,927	42.3	▼421
	학생부종합	86,083	24.8	▲915
	논술위주	11,162	3.2	▼984
	실기위주	18,821	5.4	▼556
	기타(재외국민)	4,384	1.3	▼356
소계		267,374	77.0	▼1,402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중 77%인 26만7374명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 23%인 8만7374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는 선발인원 중 87.2%인 23만3007명을 학생부위주전형으로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해 2021학년도에는 전체 모집 중 24.8%인 8만6083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이 감소한 반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은 증가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전체로는 학생부교과 비중이 훨씬 높지만, 서울 중·상위권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이 크게 높다.

### (1)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변화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고려대다. 고려대는 전형구조를 개편했다. 기존 학생부종합전형인 학교추천Ⅱ와 일반전형 중에서 학교추천Ⅱ를 폐지하고 일반(계열적합형)을 신설했다. 기존 일반전형이 변화한 일반전형(학업우수형)은 수능 최저를 완화하고 일반전형(계열적합형)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외대는 학생부종합(서류형)을 신설했다. 서류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동국대는 특기자 실기(SW)를 학종 DoDream(소프트웨어)으로 변경했다.

특히 고려대 학종 전형 변경과 수능 최저 미적용은 최상위권 대학 입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 (2)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법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이 중요한 전형 요소다.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 서류 평가로 일정 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해 1단계 성적과 합산해 선발하는 단계별 전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과 전형은 일괄합산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면접 실시 여부, 학생부 교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한다.

### (3) 수능 최저기준 적용 여부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기준을 반영하는데, 수능 최저기준은 지원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합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는지,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 (4) 학생부종합전형 경쟁률

일반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경쟁률은 학생부교과전형에 비해 높고, 논술전형에 비해서는 낮다.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경쟁률은 낮고, 서류를 종합 평가하는 전형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경쟁률이다.

### (5) 학생부종합전형의 효과적인 준비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한 달 연기되면서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에도 차질이 생겼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학사 일정이 조정되면서 교과·비교과 활동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학사 일정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① 지원 희망 대학·학과 입시 정보 수집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예년에는 4월 초부터 각 대학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해 그 대학의 수시 관련 입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는 대학 입시설명회가 4월 중·하순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학별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희망 학과의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 전형 방법을 파악하고,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통해 전형별 특징,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면접 방식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교과·비교과 활동 보완

학교생활기록부를 놓고 교과 성적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본인 활동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3학년 1학기는 모의고사, 지필평가 등과 함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보고서 작성, 진로 활동 등을 한꺼번에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월간·주간 계획표를 작성하면서 체계적으로 활동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경환 대표  
행복한3월학원

### 2021학년도 서울 15개 대학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구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등	수능	계	
2021	인원(명)	4,185	22,761	5,646	3,864	15,236	51,692
	비율(%)	8.10	44.00	10.90	7.50	29.50	100

### 2021학년도 서울 15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전형방법

대학	전형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
건국대(서울)	KU자기추천	850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
	KU학교추천	445	서류70+교과30	×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1,180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
	고교연계	750	서류70+교과30	×
고려대(서울)	일반(학업우수형)	1,178	1단계(5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
	일반(계열적합형)(2020 학교추천Ⅱ)	495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60+면접40	×
동국대	Do Dream	609	1단계(1.5/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
	학교장추천인재	390	서류100	×
서강대	1차(2020 종합형)	434	서류100	×
	2차(2020 학업형)	323	서류100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756	서류70+면접30	×
	일반	1,686	1단계(2배수이내): 서류100 2단계: 1단계50+면접50	×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563	1단계(2-4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50+면접50	×
성균관대	계열모집	655	서류100	×
	학과모집	915	서류100	×
숙명여대	숙명인재 I(서류형)	423	서류100	×
	숙명인재 II(면접형)	230	1단계(4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40+면접60	×
연세대	활동우수형	768	1단계(1.5-4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60+면접40	×
	국제형	293	×	×
이화여대	미래인재	844	1단계(3배수): 교과40+서류60 2단계: 1단계40+면접60	×
	다빈치형인재	590	서류100	○
중앙대	탐구형인재	538	서류100	×
	한국외대(서울)	학생부종합(면접형)	371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한국외대(서울)	학생부종합(서류형)	131	서류100	×
	한양대	일반	979	서류100
홍익대	학교생활우수자	383	서류100	○

### 학생부종합전형 전형 방법 및 면접 여부

면접 여부	단계	전형 방법	대학	수능 최저
실시	일괄합산	서류+면접	서울대(지역균형) 등	○
			건국대(KU자기추천), 경희대(네오르네상스), 고려대(계열적합형), 서울대(일반), 서울시립대(학생부종합), 숙명여대(면접형), 연세대(활동우수형, 면접형, 국제형), 한국외대(면접형) 등	×
미 실시	일괄합산	서류100	고려대(학업우수형) 등	○
			동국대(학교장추천인재), 서강대(종합형, 학업형), 성균관대(계열모집, 학과모집), 숙명여대(서류형), 중앙대(다빈치형인재, 탐구형인재), 한국외대(서류형) 등	×
미 실시	교과+서류	학생부	이화여대(미래인재), 홍익대(학교생활우수자) 등	○
			건국대(KU자기추천), 경희대(고교연계) 등	×
			한양대(일반)	×

###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대학	전형	모집 단위	수능 최저기준
고려대	학업우수형	인문	국, 수, 영, 사/과 합 7등급, 한3등급
		자연	국, 수(가), 영, 과 합 8등급, 한3등급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 모집 단위(음악대학제외)	국, 수, 영, 탐 중 3개 2등급
		인문	국, 수(나), 영, 사/과(1) 중 3개 합 6등급
이화여대	미래인재	자연	국, 수(가), 영, 과(1) 중 3개 합 6등급
		의예과	국, 수(가), 영, 과(1) 합 5등급
홍익대	학교생활우수자	스크랜튼학부	국, 수(나), 영, 사/과(1) 중 3개 합 5등급 국, 수(가), 영, 과(1) 중 3개 합 5등급
		인문, 예술, 자율전공(인문예능)	국, 수, 사/과(1) 중 3개 합 7등급, 한4등급
		자연, 자율전공	국, 수(가), 영, 과(1) 중 3개 합 8등급, 한4등급

# 비교과 활동 반영 축소... 관심 분야·교내활동 집중을

## 고1·2 학생부 기재 변화와 효과적인 전략 ② 비교과활동

지난 호에는 학생부 기재 중에서 교과 활동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고1, 2 학생부 기재 변화 사항 중에서 비교과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은 기재 항목은 물론 분량에서도 변화가 매우 큼니다.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폐지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집니다.

### (1) 수상 경력

수상 경력은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내 대회는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해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해 수상 경력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① 교내 대회의 종류

각 학교는 학교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내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대회는 학년 초에 발표되는 학교교육계획에 수상 비율, 참가 대상 학년, 실시일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②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회

고1, 2 수상 경력은 학생부에 모두 기재되지만 대입에는 학기당 1건(3년간 6건)만 반영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교내 대회의 수상 실적을 대입 자료로 반영했지만, 고2부터는 한 학기당 1개의 수상 경력만을 대입 자료로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대입 실적으로 어떤 수상 경력을 제공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교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상 경력은 학교 생활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교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대입 자료로써 유의미한 대회를 중심으로 참가해 수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종 평가요소 중에서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의 비중이 높으므로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수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자의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교과학습과 관련된 수상이 되겠지요. 하지만 학업우수상의 경우는 교과학습 발달상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과목별 경시대회, 각종 탐구대회가 가장 중요한 수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제탐구대회, 탐구실험발표대회, 융합과학탐구대회 등과 함께 토론회, 논술대회 등이 질적으로 우수한 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자율활동

자율활동에는 체육대회, 학교 축제,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해 시행하는 활동을 길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급 단

위, 학교 단위의 활동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구체적인 활동이 드러나는 활동을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 학교 축제(2019년 9월 20일)에서 1부 사회를 맡았으며, 전반적인 행사 준비 과정에서 '축제 준비 위원'으로 활동하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노력함. 축제 공연 참여 유도를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함. 생각을 모아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자 1학년 부회장과 협력함. 공연 오디션 시간과 장소, 신청서 제출기한을 모두 담기 위한 문구 내용과 배치에 대한 안전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함.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한 결과로 드라마 제목인 '쌈마이웨이'를 '동백마이웨이'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포스터를 제작함.  
-2020 학생부 기재, 전라남도 교육청

#### (3)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 기재는 변화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①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청소년 단체활동, 스포츠클럽 활동을 모두 기재했지만 고2부터는 자율 동아리는 연간 1개, 30자 이내로 기재할 수 있으며 청소년 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②동아리 활동에서 이뤄지는 소논문 기재가 금지됩니다.

동아리활동은 지원자의 진로와 희망 전공 분야에 대한 흥미, 관심을 엿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희망 진로와 관련해 자신의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전공적합도나 준비도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 등의 인성, 창의성 등을 함께 드러낼 수 있도록 기재하면 효과적입니다.

[예시1]과 [예시2]는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온 사례입니다. [예시1]은 생명과학과를 지원한 학생으로, 해당 전공을 학업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역량을 꾸준히 계발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예시2]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고1, 2 학생이 주의해야 할 것은 자율 동아리입니다. 자율동아리는 학생의 관

#### 교내 대회 종류 예시

구분	교내 대회
교과학습 관련	교과우수상(과목별), 과목별 경시대회, 각종 탐구대회 등
창의적체험	창의적 특색활동 발표대회, 동아리활동 발표대회,
활동 관련	진로탐색 발표대회, 봉사활동 발표대회 등
독서활동 관련	독서토론대회, 독후감대회, NIE대회 등
쓰기, 말하기 관련	논술대회, 글짓기대회, 시사토론대회, 외국어 토론대회 등
인성 관련	모범상,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등 표창장

#### 예시1(생명과학과 지원)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00	00		(수리논술반) (27시간) 동아리활동에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주제로 곡선과 같이 있는 모형을 부원들과 직접 만들어 공을 굴려봄. 공이 굴러가는 속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한 결과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굴린 공이 먼저 내려왔고 그 이유가 가속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됨. ...또한 동아리 친구들과 멘토, 멘토 활동을 하면서 서로 잘 모르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토론하면서 가르쳐주는 시간을 보냄.
2	00	00		(수리논술반) (16시간) 이차곡선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모둠별 발표 활동을 준비하였고 본인은 모둠원들이 조사해온 자료들을 수합하여 정리하고 급우들에게 발표하는 임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침. 특히 모둠원들이 조사해온 자료들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이차곡선의 기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고대의 수학자들이 최초로 발견한 시점부터 이차곡선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급격하게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수학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예시2(건축공학부 지원)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00	00		(건축디자인답사반) (39시간) 건축물의 형태와 기능을 이해하며 건축에 대하여 높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 동아리활동에 큰 흥미를 느끼며 성실하게 참여함. 특히 도시건축비엔날레에 참여하였을 때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줌.

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여겨져 필요 이상 과열되던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아리명과 간단한 소개만 기재하게 되면서 평가 자료로서의 중요성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4) 진로활동

진로활동은 고2의 경우 학생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폐지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희망'과 통합돼 진로활동의 '특기사항' 내의 '희망 분야'란에 입력하며, 관련된 내용은 상급 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진로활동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됩니다.

- ①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②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③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④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

- 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⑤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상담 및 권고 내용
- ⑥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 바탕의 특기사항

(5) 효과적인 비교과 활동-양보다 질  
고1, 2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록 항목이지만, 기재 분량이 축소되면서 변별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활동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이 보다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을 깊이 있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환규 대표  
행복한3월학원

# ‘10년후 나’를 그렸던 그 학생... 지금은 어떻게 살고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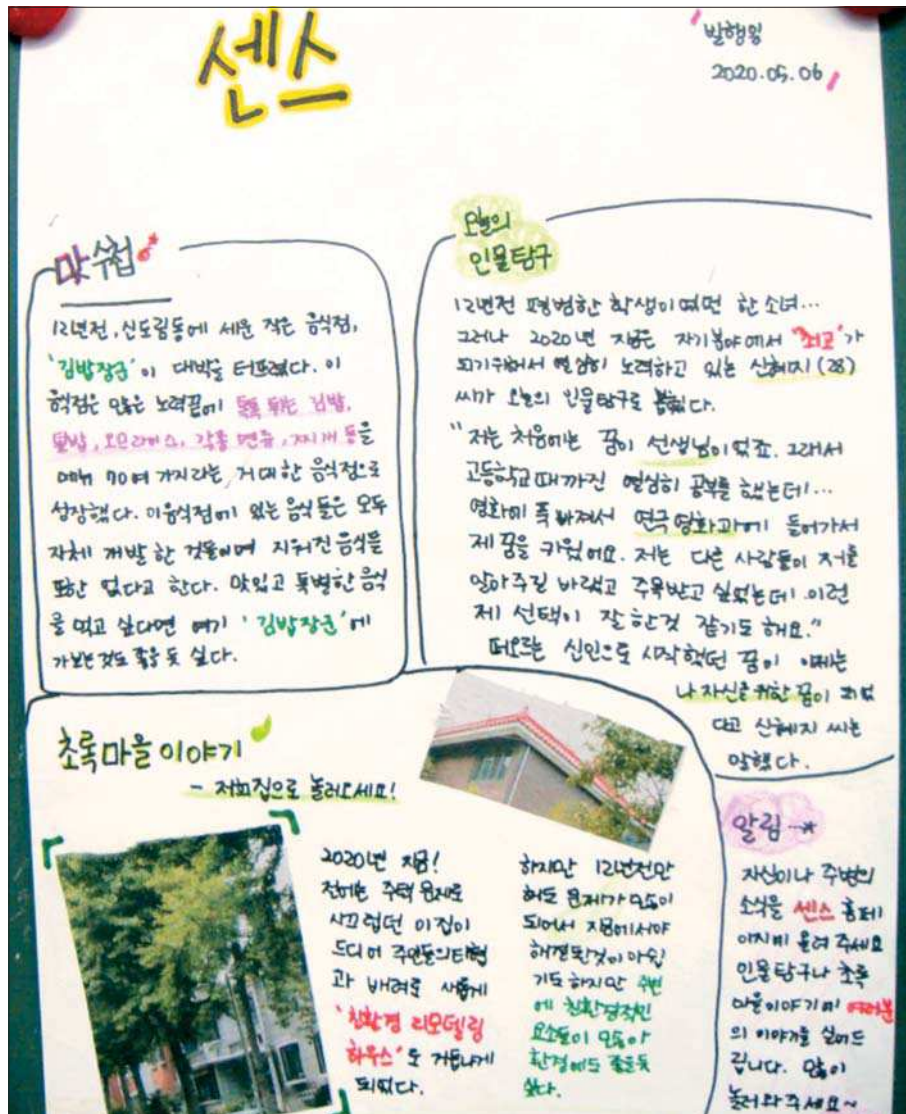
임윤희 장학사의  
교육현장 이야기

2020년을 상상했던 수업자료  
과거에 수업했던 자료 찾아보다  
‘2020년의 나’ 그렸던 기록 발견  
미처 상상 못했던 코로나사태  
열린 마무리돼 과거로 남기를  
사회적 거리 두는 지금 이순간이  
미래의 나의삶 그릴 계기 될수도

사진첩을 뒤지듯 과거에 수업했던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을 찾았다. 최소 10년 후 미래의 나를 상상하며 나를 인터뷰하는 신문 기사를 썼던 거였다.

지금부터 12년 전 중학교에서 경제신문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던 때였던 걸로 기억한다. 많은 기사들 중 2020년 5월 어느 날을 상상하며 쓴 기사가 눈에 띄었다. 2008년 어느 날 그 학생은 2020년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었을까? 교사이거나 교사였던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하루하루가 학생들과 함께했던 순간들로 기억되기 마련이다.

처음 신문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며 신문으로 장난치는 학생들 때문에 교장실



지금부터 12년 전 중학교에서 경제신문을 활용해 수업했던 자료. 어떤 학생이 2020년 5월의 나를 상상하며 나를 인터뷰하는 신문 기사를 썼다.

에서 꾸중을 들었던 기억도 떠오른다. 10년 후 자신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한참을 머뭇거리던 학생들의 얼굴도 떠오른

다. 그때 상상한 것처럼 학생들은 살고 있을까? 아니면 다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지금은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을 학생들의 모습이 스쳐간다.

4교시 수업이 끝나갈 때쯤이면 서서히 책상을 정리하며 점심 급식 모드로 전환해가던 학생들의 모습도 떠오른다. 음악실에서 들리던 피아노 소리와 변성기 학생들이 흔들리는 음정으로 부르던 노랫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3월이면 새 교실에서 새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 긴장감에 쌓여 있던 학교의 모습도 아른거린다. 학부모총회를 준비하며 밤늦도록 불이 켜진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선생님들의 뒷모습도 그렇다.

10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 10년이 지난 어느 날엔 10년 전의 지금을 상상하며 미소 짓게 되기를 바라본다. 수업이 개시되고 나면 제각각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노래로, 그림으로, 신문기사로 상상해볼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이 그림다. 10년 전 나의 제자들!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그때 써 내려간 인터뷰 기사가 생각나니? 오늘 하루하루를 사느라 미래를 꿈꿀 시간도 없는 건 아니겠지? 10년 후 2020년 오늘을 상상할 때 참 행복했었다고 추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오늘이 핑크빛이었으면 좋겠구나. 훈장말을 해 본다.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신을 오롯이 살펴볼 수 있는 때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볼 때이다.

## 우리 아이 체육관 보내면 ‘1석4조’

김재우 원장의 진로 이야기  
규칙적 운동맨 뇌 발달·체력 증진  
스포츠 규칙 따르며 사회성 ‘쑥’  
게임 통해 상황 판단력 빨라지고  
인간 관계 스트레스 관리도 배워

‘운동을 하고 나면 피곤해하고, 피곤하면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 그러나 세계적 뇌 의학 전문가인 존 레이티(John J Ratey) 하버드 의대 교수의 운동과 학습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 같은 생각들이 오해와 편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뇌세포 성장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고 학습을 위한 집중력과 이해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체육관에 보내라는 이유에는 오직 운동을 통한 뇌 발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에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 사회성을 배울 수 있고, 정해진 시간 동안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의 특성상 경쟁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전략적인 행동과 상황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 체육관에서 배운 역량들은 생각보다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기 관리 기능이 있고 또한 관계적 측면에서는 타인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관리까지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있기 전에도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은 부모

들도 어렵듯이 알고 있었지만 단기간 성과만 보고 일반화했기에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해 버린 것이다. 당연히 운동을 하지 않다가 시작하면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지치게 되는데 이는 체력이 떨어져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이 올라오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우리 교육시스템도 이를 알고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 공부를 잘하는 학교일수록 체육시간을 다른 과목 보충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충분히 체육 시간을 활용하여 취미생활로 연계하고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하여 숙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충분한 운동→체력 증진→숙면→집중력 향상→학업 향상’이라는 선순환적 생활체계를 형성해 준다. 체육활동을 등한시하는 학교일수록 수업시간에 얽드려 있는 학생들이 많고, 수업시간에 선생님 지도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우리 자녀를 한번 관찰해 보자.  
1. 자는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피곤함을 호소하지는 않는가?  
2.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서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하지 않는가?  
3.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나 책을 보는 시간이 현저하게 짧지 않은가?  
4. 생각이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이들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항목이 많을수록 보습학원보다는 체육관에 보내야 한다. 지금 부모 세대는 대문만 나가면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었기에 생활 속에서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현대에는 실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었기에 우리 부모들은 이를 보충해 주어야 할 것이다. 김재우 기초역량개발연구원 원장



# 예측 불가능 팬데믹 시대... '전이 가능한 기술'에 주목

〈Portable Skill: 업계·직종 막론하고 통용되는 기술〉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1일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팬데믹의 'Pan'은 그리스어로 모두(all)를 뜻하며 'demic'은 사람이 사는 지역을 의미한다. 즉, 전염병이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구상 모든 나라와 사람에게 전파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팬데믹 현상은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며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일상적인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는 사람 간 소통 방식과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초·중등·대학교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 방식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사진 제공=게이티이미지뱅크〉

최근 미국 구직 사이트 글래스도어(Glassdoor)는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이 특정 일자리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글래스도어 수석 경제학자이자 데이터 과학자인 대니얼 자오(Daniel Zhao)는 이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관련 커뮤니케이션, 연구, 의료 지원, 데이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이 어떻게 진행될지 혹은 얼마나 오래 이 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불예측성을 지적함으로써 미래 직업 세계의 다변화성을 강조하고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한 예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Melinda Gates Foundation)이 워싱턴지부에 설치할 코로나19 대응팀을 위한 채용 공고를 소개했다. 채용이 필요한 직책은 프로그램 관리자, 전략 관리자, 위기관리 소통자, 고객에게 질병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조언하는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오는 "이러한 일자리의 공통된 특징은 전이 가능 기술(portable skill)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직업 세계의 다변화성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이 가능한 기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다변화 환경에서 팬데믹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이전 기술을 새로운 상황에 융합하며 일하는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미래 경쟁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직업정보 네트워크(O\*

NET)와 미국 노동통계국이 제시한 2018년 평균 연봉정보와 '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지카, 코로나19 등 세계 전체가 팬데믹 굴레에 묶이면서 청소년의 미래 진로 경로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직업 세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첫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강조다. 코로나19 초기에 많은 사람은 '청소년은 안전하다, 우한에서만 발생된다. 무증상자는 감염시키지 않는다' 등 부정확한 정보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진짜 정보를 공유·확산·조언하며 위기 상황에서 개인과 조직이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영역이다. 특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태풍·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뿐 아니라 바이러스 전염병이 우리 전체 사회의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재난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분야다. 사람들이 미디어·소셜미디어, 각종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재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 나아가 국가 전체의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정보학과 하위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전문적 학문 영역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학위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또 이 분야 전문가들은 국제기



**팬데믹 선언 후 불확실성 시대  
특정 기술로는 미래 보장 안돼  
기존 기술 새 분야서 활용해야**

**재난땀 거짓 정보 범람해 혼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분야 중요  
위기서 합리적 의사결정 도와**

**정신건강 방역, 재난 극복 핵심  
두려움 극복 상담 분야 약진할것**



구·공공기관·병원 등에 적극 배치돼 위험관리를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각 지자체와 중앙부처 그리고 기업과 학교에서도 리스크 커뮤니

케이션 전문가를 적극 배치·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둘째, 전이 가능한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 시대의 유망 직업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미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높아진다. 한 분야와 특정 기술만이 행복한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환경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기술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 융합하고 재조직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 직업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열린 마음, 긍정적 태도, 위험 감수, 어떤 상황에서도 조직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전이 가능한 기술을 습득하는 근력이 될 수 있다.

셋째, 팬데믹 두려움으로 증폭된 개인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도와주는 심리 상담 영역의 약진이다. 일찍부터 선진국은 재난 구호 과정에 심리 상담을 핵심 요소로 간주했다. 최근 한국 심리학회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7월까지 코로나19로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겪는 국민에게 무료 심리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 향후 코로나19 변종이 새로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신건강을 방역하는 심리 상담 분야의 중요성은 팬데믹 시대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 된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집 앞 마트 가기도 두려운데... 지역화폐 효과 의문

재난기본소득,  
경기 살릴 수 있나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가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기자>

코로나19가 몇 달째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돈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돈 퍼주기와 같다.

현재 경기도가 실행한 정책은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 집 밖에 나가기도 두려운 상황에서 지역 화폐를 쓴다고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지역 가게가 활발해야 한다. 집 앞 마트도 무장하고 다녀오는 것이 현실인데, 가게를 활발히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바로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데에 관련된 의견이다.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여러 의견 중에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정책은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고소득층은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걷자는 의견이다. 이 방법은 당장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덜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는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2016년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투표를 한 적이 있었다. 결과는 76.7% 반대로 무산됐다. 이유는 '나중에 세금을 최소 두세 배 더 내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인 생활 보조금 정도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시행한다면 가상 시물레이션을 통해 부작용 또는 경기 부양 효과가 확실한지 정확하게 판단한 뒤 행동에 옮겨야 한다.



박인서 틴매경 학생기자 (중촌중 2학년)

## 자영업·취약계층 숨통 트이게 하는 데 도움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재난기본소득이다.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과는 다르게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경기도에선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급 대상을 논의하던 중에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어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들이 밖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임대료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마스크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금전적으로 풍족한 사람들도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데 불우한 사람들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였지만, 일주일을 2장으로 버티기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불우한 이웃에게 큰 도움을 주고, 위축되었던 경기가 활성화되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힘들게 극복하는 것이 아닌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조금은 덜 힘들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김은빈 틴매경 학생기자 (천안여상 2학년)

## 지역별 지원금 중구난방... 형평성 논란 예상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 실업자, 자영업자 등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가뭄 속 단비가 내렸다.

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찬성하지만 '현시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반대한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를 소상공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인 것

은 알겠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지역화폐 사용을 위한 외출을 부추겨 소비를 장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마다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금액 또한 천차만별이다. 10만원, 15만원, 25만원 등 같은 재난 속에서 지자체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 인천시와 부산시를 예로 들자면, 인천시에 사는 4인 가족은 총 100만원을 받는 반면

에, 부산시에 사는 4인 가족은 4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한 가구당 무려 6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재난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하지만 이렇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차등을 두게 된다면 '저 지역은 주는데 왜 저희 지역은 안 주죠?' '왜 저희 지역은 더 적게 지원해주죠?'와 같은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정말 좋

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급 방식, 지급 금액, 지급 조건 모두 다른 불완전한 현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욱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잠깐 내리는 단비보다는 조금 긴장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최에리 틴매경 학생기자 (대전여상 2학년)

# 위기속 기회... 세계가 주목한 한국산 진단키트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한국 상황과 대응을 보면서 전화위복이란 한자 성어가 떠올랐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에 이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과 이탈리아를 넘어선 미국은 하루 새 확진자 1만 명을 넘어 확진자가 총 10만여 명에 달한다.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는 하루 새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 사망자가 총 9000여 명에 달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한국의 진단키트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117개국에서 한국에 방역물품 공급을 요청하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상통화를 통해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했다. 이처럼



(사진 제공=코젠바이오텍)

전 세계에서 한국형 진단키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 중인 'RT-

PCR 진단키트'를 통한 검사는 먼저 환자의 입과 콧구멍에 면봉을 집어넣어 시료(콧물, 침)를 채취한다. 그다음은 채

취한 시료에서 RNA(핵산)를 추출한 뒤 증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해 시료를 증폭시킨다.

이러한 RT-PCR 진단키트 검사는 기존 하루 이상 걸린 검사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시켰다. 또한 코로나19 검사 정확도도 높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RT-PCR 진단키트를 포함해 이동식 선별진료(Drive-Through)와 생필품 사재기가 없는 한국의 모습을 모범 사례로 뽑고 있다.

위기 속 기회는 온다는 말이 있다.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대응자세(진단키트, 선별진료, 생필품 사재기)를 보면서, 위기속에 묻혀진 한국의 시민 의식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안도현 틴매경 학생기자(광주광남중 3학년)

## 경험 연계한 교육만이 사회에서 응용 가능해

청소년 시기 교육은 책상에 앉아서 OMR카드에 마킹을 하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한 학습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 교육을 통한 경험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미 있고 실용성이 있는 경험 위주의 학습을 해보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한 수업에 두 학년이 같이 학습하는 예도 있다. 낮은 학년 학생들의 장점은 약간의 선행을 할 수 있고, 높은 학년 학생들은 전 학년 때 배웠던 것을 복습할 기회가 생긴다. 저학년 때부터 단체활동 수업 위주로 경험을 통한 학습과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 일방적으로 외우기만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응용할 수 있고 더 값진 공부와 학습효과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성장의 주요 요인이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 압축 성장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학생 선발 기준이 매우 중요했다. 당시 전체 순위를 나열하는 형식의 교육제도는 분명 그때는 맞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단언컨대 미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하는 '라떼 세대'의 교육 성과는 어떠했을까?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했던 대학 입학 학력고사는 사교육을 없앤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과도한 암기형 문장과 고등학교 학업 성적만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어 폐지되었다. 1994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었는데 시험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방식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

20세기 초 교실 환경에서 20세기 후반 선생님들이 21세기 청소년을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교육환

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으며 창의성을 키워 낼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변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 부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가 커져야 한다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정재훈 틴매경 학생기자(고양중 2학년)

##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적극 참여해야

중국 우한시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 메르스와 달리 잠복기에도 전염이 가능해 방역이 쉽지 않고, 2차 감염, 3차 감염 등 N차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 전 세계 인구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 미국의 상황도 현재 3월 28일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10

만명이라는 확진자가 생겨나게 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이다. 3월 초에 등교하게 됐을 학생들은 1, 2, 3차 개학 연기로 인해서 유례 없는 4월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또

한 언제까지 미루어질지 모르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다. 졸업식, 입학식, 신년회 등 여러 관례적인 행사들이 취소되고, 모임이나 가족 외식 등의 발걸음이 코로나19 공포로 인해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심각한 상황이다. 삼성, SK, LG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들도 무급휴직, 희망퇴직, 임원 한시적 급여 반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나라 전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2m 이상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다같이 동참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란다.



김민준 틴매경 학생기자(장훈고 2학년)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18-180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매일경제**  
MAIL BUSINESS NEWSPAPER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틴매경 **TEST**

## 열리는 취업의 길 틴매경 TEST와 함께



### 제33회 시험일 : 20.04.18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mailto:mktest@mk.co.kr)